



따뜻한 새벽을 위한 값진 천원, 천원 아침밥 식당에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

-“지난 20여 년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”

-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24일 오후, 지난 10월 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던 충북 청주의 ‘만나김치식당’을 다시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.
 - ‘만나김치식당’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아침(5시~9시)에 공사 현장 근로자, 인근 어르신 등에게 백반을 제공하고 있으며,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8년부터 천원씩 받고 있다.
 -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1일 ‘만나김치식당’을 직접 방문하여 식당을 운영 중인 박영숙씨에게 노고와 나눔 실천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.
- 한편, 최근 김 총리는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‘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 - 지난 12월 4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빚고을 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 24일에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하여 아동양육시설을 격려할 예정이다.
 -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온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·격려하여,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과 상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	책임자	과 장 김홍수 (044-200-2698)
		담당자	서기관 류준호 (044-200-2699)